

제3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환경 분야 -

안 성 혜 (상명대학교 교수)

최 진 하 (UNDP금강습지사사업관리단장)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 분야 -

안성혜 | 상명대학교 교수

I. 서론

본고는 먼저 민선4기 충남도의 전반기 문화 분야의 도정 방향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 분야 도정의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제시한 민선4기 후반기 문화 분야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논고를 마치려고 한다.

II. 전반기 문화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

1. 전반기 문화 분야의 충남도정의 성과

1) 균형있는 지역발전

- 4대 권역별 성장거점 확보
 - 東 : 행정중심복합도시
 - 西 : 도청신도시, 태안기업도시
 - 南 : 국방과학클러스터, 백제역사재현단지
 - 北 :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배후신도시
-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 서남부권 낙후 8개 시·군에 성장동력사업 지원 (5년간 3,000억)
 - ⇒ 4대 성장거점지역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의 틀 마련

2) 품격 높은 문화관광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구상 완료 ('08.5), 용역비 10억원 국비 확보 (7월 착수)
-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08~'17, 6,702억원)
 - 공립예술단 공연 확대 : '06년) 213회 → '07년) 239회
 - 문화예술 공간 확대 : '06년) 183개 → '07년) 189개
 - 찾아가는 공연 확대 : '06년) 319건 → '07년) 395건
- Pre-계룡軍문화축제 성공 개최 : '06년) 50 → '07년) 76만명
- 세계인이 모여드는 관광 충남
 -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선정 ('07~'12, 131억원)
 - 문화부 지정 축제 : 7개 선정 (전국 56개 지정 축제 중 최다)
-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 도장애인체육회 설립 ('07.12), 청소년육성센터 개소 ('08.3)
 - 인조 잔디 조성 : 88개소 (운동장 24, 게이트볼장 64)

3) 백제문화제 통합 운영

- 공주·부여에서 격년 개최하던 백제문화제를 53년 만에 통합
 - ⇒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의 발판과 세계화 기반 마련
- 관람객 급증 : '06년) 60만명 → '07년) 126만명/ 경제효과 353억원
- 국제문화교류 협정체결 :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3개국

4)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 유치

- 백제테마 아울렛, 콘도, 테마시설 등 역사·문화체험, 엔터테인먼트, 휴양레저가 복합된 「역사 테마파크」 조성
- 민간투자 협약 : 2,500억원 규모 ('07.12)
 - ⇒ 공공성·수익성이 공존하는 관광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

5) 문화제 시·발굴조사 기간 단축

- 문화제 발굴기관 및 인력부족 → 시·발굴에 많은 시간 소요
 - 공사 중단·사업계획 변경으로 투자시기 등 기업경쟁력 상실
- 「문화제 지표조사 및 시·발굴제도 개선방안」 건의 ('08.1.18)

- 문화제청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08.4.30)
 - ⇒ 문화제 조사 처리기간 단축 (140일 → 40일)

6) 다민족 다문화 상생의 충남 만들기

- 민족간 융합위한 지원조례제정, 쌍방향 문화교육 ('08년 80억원)

2. 전반기 문화 분야 충남도정의 과제(문제점)

1) 전반기 문화 분야에 대한 도민 만족도 평가결과

(1) 문화예술 확충 등 시책이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

계	크게 효과	어느 정도 효과	보통	별로	전혀	무응답
800명	123	377	225	48	6	21
100(%)	15.4	47.1	28.1	6.0	0.8	2.6

⇒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62.5% (보통이상 90.6%)

(2) 백제문화제 통합개최가 백제문화 세계화에 미치는 효과

계	크게 효과	어느 정도 효과	보통	별로	전혀	무응답
800명	287	327	123	36	9	18
100(%)	35.9	40.9	15.4	4.5	1.1	2.2

⇒ 효과가 있다고 생각 76.8% (보통이상 92.2%)

2) 2007년 문화관광국 소관 추진사업 자체평가 결과

(1)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예산사업 7건
 - 문화예술과 (2건), 관광진흥과 (3건), 체육청소년과 (2건)

<표 1> 2007년 문화관광국 소관 추진 사업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집행예산	평가결과
1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과	5,112백만원	우수
2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정비	문화예술과	33,704백만원	우수
3	민간 자율 관광수용태세 강화	관광진흥과	65백만원	우수
4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관광진흥과	1,350백만원	우수
5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관광지 개발	관광진흥과	3,060백만원	우수
6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체육청소년과	32,586백만원	우수
7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체육청소년과	10,526백만원	우수

(2) 종합평가

< 총 평 >

-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순회공연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광마인드 향상,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투자여건 조성, 불합리한 조성계획 변경, 선진 관광개발 기법 도입으로 관광객 증가
-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 추진성과 >

-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전개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철저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적 보존·정비와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및 지정으로 문화도 위상 정립
- 우수민간자율조직 구성 및 지원확대, 차별화된 홍보로 국내·외 관

광충남 인지도 확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 분산된 청소년 유사업무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재)충남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추진

< 보완·개선 할 과제 >

- 공립예술단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연과 운영주체의 지역 내 집중 공연의 개선 필요
- 민간자율 관광개선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태안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서해안 지역 관광객 유인대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지원비 예산부족으로 운영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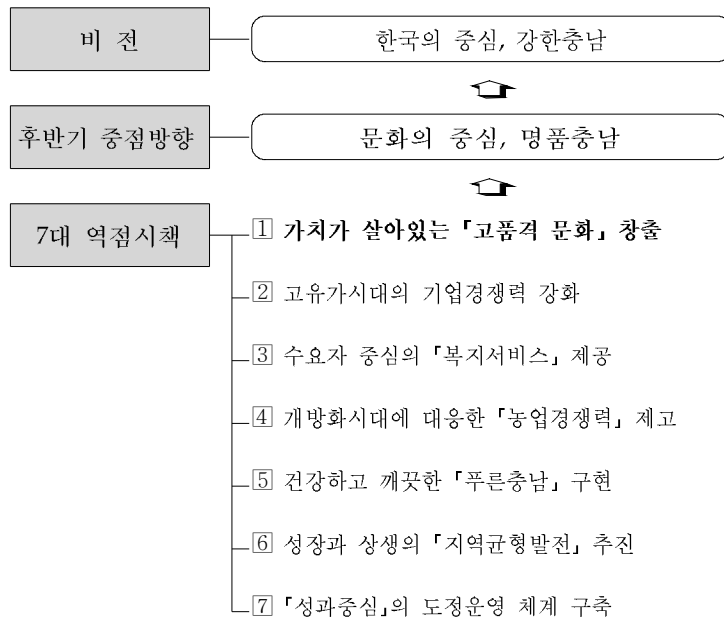
III. 하반기 문화 분야 도정방향

1. 충남도에서 제시한 하반기 문화 분야 도정 방향

1) 기본방향

- 「창의와 도전, 실천행정」의 역동적인 도정 수행
-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 ⇨ 한국의 중심으로 도약
 - 문화와 경제,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의의 「문화」
 - 문화자원 극대화 → 삶의 질 향상, 가치창출, 성장 동력화

<그림 1> 도정운영의 기초



2) 역점시책 :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

(1) 「문화중심도」 실현

-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본격 추진 ('08~'17, 6,702억원)
 - 순수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저변확대,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중점
- 문화체육 관광분야 조직 보강
 - 문화산업과 신설 :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관광산업과장 : 외부 전문 인력 채용, 관광마케팅 기능 보강
 - 백제사 전문가 채용 : 백제사 연구 및 교류 전담팀 구성

(2) 백제문화의 세계화 기반 구축

< 단계별 추진 전략 >

- 1단계 ('08 ~ '10) : 공주·부여중심의 기반조성
- 2단계 ('10 ~ '13) : 전 시·군 확대, 육성
- 3단계 ('14년 이후) : 서울한성백제, 전북익산과 공동발전

- 제54회 백제문화제 변모 ('08.10.3~10.12, 150만명 목표)
 - 대표 프로그램 : 6개 (국제문화 교류촌, 황산별 전투 재현 등)
 - 기간 확대 : 5일 → 10일, 예산액 : 40억 → 80억
 - 야간프로그램 보강 : 총59종 중 야간프로그램 16종
 - 프로그램별 책임 PD제 운영
 - 주민참여 확대 : 백제옷 등을 값싸게 제작·판매
- 「2010 大 백제전」 성공적 개최 (50일간, 200만명 목표)
 - 기본계획 수립, 국제행사승인, 국비 확보 등 완벽한 준비
 - 인프라 구축(공주 아트센터), 2009 Pre-대백제전 운영
 - ⇒ 세계역사도시 연맹 회원도시 (50개국 75개 도시) 참여 유도
- 「해상 백제로드 크루즈 운항」 추진
 - 구상 : 일본 나라현 - 당진항 - 중국 상해 간 취항 (2010년)
 - 나라현과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08. 7월중)
- 백제역사의 세계화
 - 한·중·일 백제학회 설립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 ('08. 7)
 - 연구발표, 백제홍보, 국제학술교류 참여, 학회지 발간 등
 - 백제문화제 한·중·일 국제학술 세미나 ('08. 10)
 - 한·중·일 백제문화 심포지엄 ('09년 일본 큐슈)
 - ※ 제2회 한·일 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08. 6)
 - 「구다라 웹사이트」 개설 : 백제역사 Web서비스 제공(일본어)
-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 2010년 목표
 - 대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
 - 체험+숙박+엔터테인먼트+레저가 복합된 역사테마파크 개발

- 제3자 제안내용 공고 등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이행
⇒ 2010년까지 숙박, 테마파크 시설 우선 완료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2008~2030(22년간), 1조 3,000억원, 문화유산 발굴·복원 등
⇒ 2010년까지 선도 사업비 40억원(국비), 군·특 등 1,000억원 초기 집중투자 계획

(3) 활력있는 관광중심 道 실현

- 「2010 지역방문의 해」 유치(공모사업) : 충청권 공동 유치 협의
- 지역특성 살린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
 -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테마관광지 및 태안기업도시 조성 등

(4) 창조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디자인 컨버전스 센터 건립 (60억원) : 디자인기업 창업 지원
- 백제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 애니메이션, 게임 등
- 軍문화엑스포 추진
 - 2008 계룡軍문화축제 (10.14~10.19) : 건군 6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
 - 정부주도의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5) 스포츠가 활성화된 충남 구현

- 인조 잔디 조성 ('09~'10) : 84개소 (학교20, 게이트볼장64)
-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회원 증대 및 소외계층 참여 확대
-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4개소/ 6,300백만원

(6)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개발촉진 지구, 아산만권 신도시 등
-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건설
 - 문화가치를 중시한 도시계획 기법 도입,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
 - 도시 랜드마크화, 공공 건축물 디자인 공모를 통한 건립
 -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확대 →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

IV. 문화예술 중심의 가치창출 방안

1. 충남문화산업의 현황

1) 문화산업의 개념 및 범위

- 협의의 개념 :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
- 광의의 개념 :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물들
- 경제학적 개념 : 문화를 소재로 상품화하여 유통하는 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됨³⁾
 -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음반·비디오·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장 제2조 제1항, 2003. 5. 27 개정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함⁴⁾

※ 문화콘텐츠 :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⁵⁾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산업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인터넷/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등으로 구분
- 『2006 문화산업백서』 : 저작권 라이선싱, 영화·비디오·DVD,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만화, 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캐릭터, 정기간행물, 방송, 광고, 출판, 공예, 공연, 디자인 등의 16가지로 분류

2)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 국내 콘텐츠시장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기업규모로 수익성 악화, 낙후된 유통체계, 저작권 제도 미비,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실정
- 대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 사업의 성장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 분야로 진출
 - 주로 온라인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인터넷 포털, 게임, 음원, e-러닝 등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배급 및 유통의 사업형태
-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의 흐름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 문화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영상콘텐츠 서비스의 고도화로 진행
 - 2000년대 중반부터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콘텐츠의 멀티 플랫폼화가 화두
 - 웹2.0 시대, UCC 시대의 OSMU 전략, 멀티 플랫폼화 전략과 콘텐츠 확보를 통한 콘텐츠 업체 간의 제휴나 M&A 활발

4)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올미디어, pp.25-26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문화콘텐츠는 미래경쟁력이다

- 통신업체는 IPTV, WiBro, DMB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확보하여, 기존의 통신·방송 시장을 넘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
-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필요한 각 부문의 법·제도 정비, 중장기 발전 전략, 인프라 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3) 충남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1)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 및 전문 인력현황

- 충남지역 내 18개 종합대학과 7개 전문대학에 문화콘텐츠관련 학과는 154개로, 한 해 동안 7,529명의 전문 인력 배출
- 종합대학 집적률은 7.4%로 전국 4위
- 예술에 기반을 둔 대학 관련학과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디지털음악, 문화기획, 영상예술, 패션, 공연문화, 다중매체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 대학원의 콘텐츠관련학과 및 전공은 32개 학과
- 충남지역 문화산업관련 연구기관은 총 70개이며,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50개에 해당되나, 문화콘텐츠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는 17개소에 해당됨⁶⁾
- 영화·영상 관련 연구소는 4개, 애니메이션, 게임(에듀테인먼트 포함), 콘텐츠기획·경영 분야 연구소가 각각 11개, 그 외 방송과 음악 관련 연구소 2개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대학 졸업생의 지역취업 한계와 지역 대학원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콘텐츠 창작 및 기술개발의 연구기반 취약
- 문화콘텐츠 관련 고급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연구지원 체계 필요
- 충남지역 내 대학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인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개발 장려정책을 통한 킬러 콘텐츠 발굴

6)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CT산업 기반조사』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임.

- 고급 문화콘텐츠 창작인력의 연구개발 성과물과 산업체가 연계되어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의 문화콘텐츠상품화지원센터 구축

(2)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체 현황

- 16개 도시 대비 충남지역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은 0.5%(648명), 지역 매출액 비율 0.5%(1,021억 4,900만원)로 매우 낮음⁷⁾
- 문화산업입지계수 : 전국대비 최하위권
- 충남의 문화산업은 천안지역에 영화, 게임, 출판물 중심으로, 당진에는 방송, 캐릭터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대전과 가까운 논산에는 방송, 출판, 영화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관련사업체는 총 128개로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에듀테인먼트, 영화/영상, 출판, 디자인, 광고, 기반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있음⁸⁾

<표 2> 충남의 CT 사업체 현황

구 분	조사기업 수	비율(%)
애니메이션	5	3.9
방송	12	9.4
음악	0	0.0
게임	4	3.1
에듀테인먼트	5	3.9
영화/영상	12	9.4
출판	23	18
광고	0	0.0
기반기술	24	18.8
간접관련분야(디자인)	43	33.6
합 계	128	100

- 충남지역별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 현황을 보면 천안시에 74개의 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전체의 57.8%를 차지)
- 콘텐츠를 가공·홍보하여 상품화하는 디자인분야의 업체가 많음

7) 문화관광부(2006), 2006 문화산업통계

8)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 CT산업 기반조사

- 콘텐츠를 창작·개발하는 중소벤처는 취약한 실정으로 간접관련분야인 디자인과 기반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충남지역에서 61개 업체에 지나지 않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충남지역별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는 영세한 수준
-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와 업체현황 등의 DB구축 부족
-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업체 중점 육성 필요
-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창업을 하여 충남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충남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관의 현황

- 충남 자치단체의 문화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 지원, 문화산업(축제) 총괄, 문화재 관련, 관광산업 지원 등
- 충남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는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총 30개 기관
- 충남의 CT 지원기관은 천안시에 12개로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고, 문화시설 역시 천안시가 15개로 가장 높으며, 공주시가 8개로 그 뒤를 이임⁹⁾
-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 지역혁신체제(RIS)운영, 창업보육지원, 연구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력양성, 장비구축 활용, 기술이전, 교류협력, 기업지원 등
- 충남영상미디어센터 : 디지털영상, 3D영상분야를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사업화(창업)지원, 공동기술개발, 선도 기업유치, 특화분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영상산업을 중점 육성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비전제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IT/CT 관련 공용장비구축, 기술지원, 기업지원, 영상이벤트사업 등

9)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문화산업발전전략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R&D 센터,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구축
- 문화콘텐츠 관련 대기업 유치로 매체별 유통의 확보
- 주민, 대학,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의 개최

2. 충남 문화산업의 육성 방안

1) 지역기반의 문화산업 진흥 사례

(1) 경기디지털진흥원

- 애니메이션, 게임 등 창의성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조기 발굴 및 지원과 우수 전문 인력 양성
-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으로 지원환경 개선 및 확대
- 동북아 글로벌 디지털문화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 영상, 게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을 통해 부천을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 계획
- 문화·관광·레저 연계형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전략으로 창의적인 문화 환경 조성

(2)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
- 2004년부터 3,000억원 지원, 2023년까지 5조 3000억원 투자 예정
- 아시아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되는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계획
- 문화발전소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으로 랜드마크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광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지역 문화자산의 개발 및 물적 인프라 구축, 문화벨트 구축 및 중·소 거점 연계, 생태문화축 조성
-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임방울 판소리 등 전통예술부터 광주비엔날레 등 현대예술까지 광주지역의 기초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영상, 게임, 음악, 공예, 디자인, 에듀테인먼트를 집중 육성

2) 단계별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수립

- 1단계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단계
- 2단계 : 문화콘텐츠상품 개발단계
- 3단계 : 브랜드 가치화 단계

<표 3> 충남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단계 및 추진목표

단계		단계별 사업 추진 목표
1 단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단계	-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인프라 구축 - 지역기반 전문 인력 양성 ① 연구기반 R&D 센터 :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채용 ②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벤처·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③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공예, 패션, 주얼리, 전시, 토이, 산업 디자인, 포장, 웹, 이벤트 등을 통해 콘텐츠의 가공 및 상품화, 홍보 마케팅 지원 - 산·학·연·관 연합 네트워크 혁신체계 구축 - 충남디지털콘텐츠페스티벌 조성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2 단계	문화상품 개발단계	- 연구기반 R&D 센터 : 문화원형 및 소재 발굴, OSMU형 콘텐츠 개발기획, CT기술개발 -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지역기반 산업체 양성 -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콘텐츠의 상품화, 마케팅 및 홍보 - 대기업 유치 : 콘텐츠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시스템 구축 - 스타 문화콘텐츠 창작 - 충남디지털콘텐츠페스티벌 정착 : 문화콘텐츠산업의 붐업
3 단계	브랜드 가치화 단계	- 도시디자인 : 지역이미지 확립과 경제적 성과의 공동성장 - 관광 상품 개발 : 충남지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관광 상품 개발 - 문화체험 공간 구축 : 유통·전시·체험·판매·소비 기능을 집적한 문화체험 공간 - 페스티벌과 연계한 축제/이벤트디자인

3) 충남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

(1) 충남 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 독특한 문화원형(Archetype)을 소유한 문화자산의 확보
 - 백제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문화원형의 DB 구축 노력
 - 충남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 문화자원의 9.0%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에서 5번째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충남의 전통문화자원, 역사자원에 비하여 콘텐츠 자원이나 상품자원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¹¹⁾
- 문화자원 개발전략 : 개발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 공간 기능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개발이 핵심 키워드임¹²⁾
-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문화자원의 유형화 필요
 - 문화자원 개발은 현재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에 따라 기존 이미지 '강화',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로 개발 유형을 설정
-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단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구축 단계
 -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단계
 - 스토리텔링의 멀티미디어화 단계
 - 상품화 단계
-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 유형화하여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를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하고 상품으로 활용

(2) 문화관광 인프라와 시스템의 확충

- 문화예술 진흥정책 :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 순수예술은 국가브랜드·이미지 형성과 창조적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
 - 대표 예술단체, 공연기관 육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화
- 문화와 산업, 교육, 관광, 체육 등을 결합한 시설의 복합화
 -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유적과 공원, 경관 등 문화 환경의 정비
 -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지역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개념

10) 문화제청(2006), 지정문화재 총괄현황

11) 충청남도(2006), 충남통계연보

12)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도입으로 공간적 질 확보

- 문화산업단지는 그 자체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장기적 육성계획 수립으로 충남지역의 정체성 반영
- 역사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시·판매 공간 조성
 - 문화예술행사, 문화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하는 가변형 복합 공간
 -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레지던스 운영
 - 세계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관광지 조성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탈거리 등 관광시스템 구축

(3)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

- 문화예술의 관광 상품개발
- 풍부한 지역문화,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독창성과 흥미를 갖는 테마 상품 개발
- 지역적 특색 반영한 상품품목과 형태의 다양성, 독창적인 소재와 재료, 디자인의 질적 향상 필요
- 장소마케팅 전략 : 고유성 확립으로 지역특화 이미지와 지명도 상승 효과, 관광마케팅, 문화상품의 브랜드 육성
-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적 기반 확립으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자금심 고취, 소득증대, 고용창출, 지역전문가 양성

V. 결론

문화소비계층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일반 시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시설보다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 지고 있다. 이제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 분류 영역에 지역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곧, 문화와 환경은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되고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경제적 가치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남의 문화전략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활용한 문화 환경 정비 및 활성화 사업으로 충남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백제문화제 중심의 지역축제 구성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유형으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4기 충남의 문화산업 육성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역사단지 및 문화산업지구 조성 등의 하드웨어 중심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전략과 예산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¹³⁾과 활용이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삶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충남은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콘텐츠, 생명력이 있어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구축단계이다. 즉,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를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민선4기 후반기 문화 분야의 도정의 방향은 이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장기적 육성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이란 지역문화(특수성)를 소재로 하되 이를 보편적 가치로 환원하는 탈지역화의 단계를 거쳐 세계화(보편성)를 지향하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킨다는 의미

[참 고 문 헌]

1. 충청남도(2008), 민선4기 전반기 충남도정 종합회견 자료
2. 충청남도(2008), 도지사공약총괄보고서 자료
3. 충청남도(2008), 충청남도 2008 주요 업무계획 자료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장 제2조 제1항, 2003. 5. 27 개정
5.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홀미디어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문화콘텐츠는 미래경쟁력이다
7.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CT산업 기반조사
8. 문화관광부(2006), 문화산업통계
9.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문화산업발전전략,
10. 문화제청(2006), 지정문화제 총괄현황
11. 충청남도(2006), 충남통계연보
12.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환경 분야 -

최진하 | UNDP금강습지사사업관리단장

I. 서론

환경 분야를 언급하기 전에 두 가지의 편린에 대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과정에서 주인 된 유권자는 과연 얼마나 당당하면서 오랫동안 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지구적 패러다임으로써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충남도정의 이해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선거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학연·혈연의 벽을 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의 경우 해당 정당의 압력에 좌고우면하기 어렵게 감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재임기간동안 위치에 걸맞는 치적을 쌓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야 함으로 다수의 단체장들이 자신의 공약사항을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도입, 점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또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6개 광역지자체단체장의 공약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경북, 경남, 부산, 충남의 지자체는 당선 후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지자체로 평가되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다행이라 생각한다. 내용을 보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역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

하였으며 정기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표 1> 이행계획서 우수 작성 지자체 및 관련사례

지자체	단체장	우수사례	평가계획
경상북도	김관용	공약사항 등 주요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실시후 결과 공표	-6월 중간평가, 12월 최종평가진행 (자체평가) -이행실적 부서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경상남도	김태호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 전문가 및 연구기관 참여, 연도별 추진계획 및 일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음. 공약관리체계, 관리계획 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공개 (홈페이지 활용)
부산광역시	허남식	당선 후 지역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계획서 작성.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구축	-연2회 공약추진상황 평가, 결과공개 (홈페이지 활용)
충청남도	이완구	타 후보자 공약 6건 수용 및 추진.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군수분류, 공약에 대한 추진 상황 별도 관리	-도지사 선거공약 추진 연1회 개최
서울특별시	오세훈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작성·발표. 연도별추진계획 및 일정, 달성목표, 확인지표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전라북도	김완주	당선 후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 실시 후 반영	-
강원도	김진선	이행계획서에 공약추진일정,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제주도	김태환	각 정책별 2010년도 달성목표지표를 제시하여 향후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자료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2008), 매니페스토 이행현황과 평가의 중요성<표4>, p.11

충남의 경우 당선 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 후보자의 공약 6건을 수용하여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개 시장, 군수의 공약을 분류하여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등이 좋은 사례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의 단체장들은 재임기간에 실현가능한 공약에 집중하다보니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기피하고 꼭 필요한 지역사업임에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하는 이중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선거 판세가 일방적으로 우·열세가 판단되는 지역은 더욱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민선후반기 이후의 정책 전반의 재평가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행정복합도시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액션플랜을 제시하여¹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II.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환경과 연관성이 깊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반기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기로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올여름의 날씨가 심상치 않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안테산맥과 함께 열대지방에 있는 동부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의 만년

14) 정부는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정복합도시 ‘탄소중립(CO2-Neutral) 도시’로 조성해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추게 하고 우수대학과 연구소 등 유치대상을 내년까지 확정해 2012년부터는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나 충남도와 협의를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설은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온도 변화에 민감해 녹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산에 있는 만년설은 지난 20년 동안에만 33%가 줄었으며 1912년과 비교하면 82%나 였었다. 미국 오하이오대학의 로니 톰슨 교수는 “이 만년설은 2015년쯤 모두 녹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2003년 1월 한겨레 신문에 올려진 킬리만자로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빗나갔고 지금 킬리만자로산 정상에는 만년설을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에 대한 경고로써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¹⁵⁾에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세계자원 소비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개발만능주의의 폐해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세계 16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국가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선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담고 AGENDA21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 이후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 2007년 발간된 IPCC보고서¹⁶⁾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위험을 강력 경고함으로써 그 정점을 찍게 된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의 환경적 패러다임이 기후변화를 대처하

는 체계로 하루빨리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 이전에 인류생존의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충남도는 2007년 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T/F팀을 도지사 지시에 의해 구성하고, 2008년 현재는 충청남도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이하 기후변화본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앞선 정책이긴 하나 구조적 시스템이 각 부서 간 연결고리가 약해 좀 더 세밀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후변화의 핵심은 친환경적인 자원순환과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절약형 에너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나 기술력과 제정의 뒷받침이 열악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 등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최근 각 기업들이 앞다투어 태양·바람·지열·바이오연료 등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이용(Wise-Use)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분야의 투자가 중부지방에 위치한 충청지역보다는 영호남지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수도권의 물류에 유리한 중화학산업의 편중된 유치로 인해 차후에 발효될 예정인 온실가스총량제 등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태안군이 신재생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력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수동적인 절약대책에 대한 수사적인 홍보를 벗어나 이제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¹⁷⁾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은 물론 일반가정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15) 이 보고서는 로마클럽 최초의 제 1 보고서이다.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 1968년 로마에서 창립된 후에, 제 1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제목으로 1972년에 출판되었다. 자원과 환경의 미래에 대한 기초개념은 1968년 4월부터 로마클럽의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25개국, 70명으로 구성된 과학자, 교사, 경제학자 및 산업계 인사에 의해 정립되었다. 로마클럽의 연구목적은 인류의 미래에측에 관한 검증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되어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6)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회의)는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1988년에 창설되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발표한 제4차보고서 작성에 2,5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130여개 국가가 참여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17) <http://www.rec.or.kr> 참조

록 액션플랜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디자인방식이나 행정기관 증·개축, 대형건물 및 일반주택 신축 시에도 자발적 혹은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은 물론 지원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대책팀의 보완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능동적 행보 필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가 공통으로 조화되고 협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은 지속가능발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첫째,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노력과 둘째, 사회·경제적 정책을 개발할 때 환경 총량을 고려하는 환경보전노력, 그리고 개발계획 시 자연환경의 재생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과 정책마련이 가능한 의사구조 확립 등에 대한 Agenda 도출이 중요하다.¹⁸⁾

민선4기 도지사 공약에서도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은 초기 5대 과제 중 중점공약 사항이었으나 이후 9개 과제로 보완되면서 논리 및 설치근거의 연구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로 이관된 이후 하위개념인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생태환경체험교육장 건립, 친환경상품 공공의무 구매확대 등 타 공약에 비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 설치 및 운용방안의 공표를 통해 공약이행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외식적인 위원회의 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직면한 급진적 개발에 대한 친환경적인 보완제 역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체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시스템구축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민관파트너십을 중요시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합동평가를 통한 환류(feed-back)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¹⁹⁾ 충남도의 빠른 행보를 기대해 본다.

18)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방안 연구, pp.19~21.

3. 공약점검과 하반기 환경정책 방향

충남도에서 발간한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에 보면 환경생태분야는 9건<표 2 참조>으로 문화 복지를 제외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면 경제·통상 분야 18건 지역개발 12건과 비교할 때 양적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고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환경·생태분야 공약이행 실적

공 약	2008년 말까지 추진계획	비 고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용역완료, 비오톱지도 9개 시·군 추진	2차 용역 수행 중
금강 및 삼교호 수질 II급수로 획기적 개선	연기군 등 4개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등	-
수질총량관리센터 설치 운영	기초조사 실시,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기술지원	1,496백만원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건립	북부권 교육장 준공, 남부 및 서부권 타당성 검토	1,300백만원 예정
사구 및 갯벌보전사업 강화	오염방지시설(1개소) 추진	434백만원
친환경상품 공공의무구매확대	조례제정 추진	10월중 구매촉진 교육실시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조례제정 추진	기획실 이관
천수만·금강하구 생태공원 명소화	조류생태전시관등 공사발주 추진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활동범위 확대검토	612백만원

주 : 충남도(2008),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 편집정리

19) 환경부의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써의 활용과 시민 동참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성화방안(2008.7.7)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생태분야의 특성상 대형사업(금강 및 삼교 수계 수질 II급수 개선 사업, 천수만·금강하구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의 경우 국비의 확보가 우선 시되는 사업으로 충남도 환경관련 부서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지사의 부처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반기 충남도에 대한 언론자료 등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및 대형건설 사업에 단체장의 활발한 홍보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으나 환경 보전형 투자사업은 특성상 투자대비 효과의 측면이 늦게 도출되는 관계로 자칫 관계부서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후반기는 투자유치 상위권 도정의 연속성 계승과 아울러 환경보전 상위권 지자체로 거듭나는 것도 상호간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경우 국고투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비를 주축으로 한 사업임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물관리대책본부의 발전적 계승과 수질우수마을 선정지원 사업의 확대,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도량살리기 사업(연기 숲천골 사업 등)의 광역사업화, 그리고 충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도사업 확대, 서해안 오염의 저감 및 모니터링연구를 위한 센터건립 등에 관심이 요구된다.

III. 결론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민선4기 후반기에 들어설 즈음의 충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도시·환경·에너지 통합형의 충남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분절화 되어 있는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시 계획내용이나 개발 사업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두 차례 수립되어 왔으나 단기적이고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계획수립이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향후에 도출하고 지켜 나아가야 될 전략과제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토대로 도시계획, 환경계획, 에너지계획, 관련행정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가동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진단 및 기본 전략수립지침 작성.
2.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방안연구.
3. 충청남도(2008),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
4.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2008), 충남도지사 메니페스토 이행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운동가 워크숍.
5.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6. 충청남도(2008),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연구.
7.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8. <http://www..rec.or.kr>
9.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86426>